

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 도 자 료	보고서명	자본시장 토큰화의 확산: 해외 주요 사례와 국내 도입 과제
	문의	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640, junghy0103@kcmi.re.kr)

-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화를 활용한 상품과 관련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, 금융기관과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부상
 - 토큰화는 개념검증이나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거래와 업무에 적용되며 실제 활용 사례가 축적
 - 국내에서도 토큰화 대상을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·채권·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방향이 발표됨에 따라, 토큰화 논의가 자본시장 상품의 토큰화와 시장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본격 확대될 전망

- (글로벌 자본시장 토큰화의 특징) 전통 금융상품이 주로 토큰화되는 가운데 업무 개선 편익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선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시장인프라 기관의 참여가 확대
 - 규제체계와 시장관행이 정립된 전통 금융상품은 법적 불확실성이 낮고 시장참가자의 수용성이 높아 토큰화의 도입과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
 - 다수의 기관과 시스템에 걸쳐 업무가 분절되어 기존 업무구조상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담보관리, 펀드 운영·관리, 채권 발행·결제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선별적으로 확산
 - 권리관계의 법적 확실성과 운영 책임을 뒷받침하고 토큰화 플랫폼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결할 주체가 필요함에 따라 시장인프라 기관의 참여가 확대

- (해외 주요 활용 사례와 최근 동향) 담보관리 및 repo 거래, 토큰화 MMF, 채권 발행 및 결제 등에서 상용화와 실증이 진전되고 있으며, 최근에는 상장주식의 토큰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확대
 - (담보관리 및 repo 거래) 담보의 이동성을 높여 담보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

한편, 필요한 시간 동안만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일중 repo(intraday repo)를 통해 자금조달 효율성을 제고

- (토큰화 MMF)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관 간 대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비용과 결제 시차를 줄일 수 있으며, 디지털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수요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펀드 지분을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어 활용성이 제고
- (채권 발행 및 결제) 채권 생애주기 앞단인 발행 및 결제 단계에 토큰화 도입이 집중되고 있으며, 상용 발행 플랫폼의 확충과 중앙은행화폐 결제체계의 검증 등을 바탕으로 일회성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점차 활용
- (상장주식의 토큰화 추진 동향) 미국 주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의 토큰화가 추진되고 있으나, 기존 거래구조 대비 추가 편익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식시장의 거래 특성에 적합한 결제방식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
 - 한편,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초 주식의 경제적 성과에 연동되는 주식연계 토큰이 제공되고 있으나, 법적 구조상 상당수는 주식이 아닌 구조화증권·증서에 해당

○ (국내 도입 방향과 과제) 토큰화가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와 규제 정비, 단계적 실증 및 시장인프라·결제시스템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

- 금융안정 위험과 운영·보안 위험, 플랫폼 간 분절 및 특정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가능성에 유의하고, 국내 시장 여건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고려하여 실제 편익이 확인되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- 필요한 규제 해석과 제도 보완을 적시에 제공하여 규제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,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
- 국채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반의 파일럿을 추진하고, 운영 안정성 및 실질적 편익이 확인되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
- 시장인프라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증권시스템과 토큰화 플랫폼을 연결하고, 중앙은행화폐 기반의 결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결제자산 간 상호운용을 위한 제도·인프라를 구축